

1999년도 전국 양묘기술세미나 상황

1. 회장 인사말

오늘 전국 양묘기술세미나를 조림열이 가장 높고 또 조림을 잘하는 전라남도 중에서도 난대 수목원이 있는 이곳 완도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펍 의의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각지방산림관리청 및 각 시도 양묘담당관과 양묘협회 회원 여러분이 동참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정기국회가 개회중에 있어 공사간에 시간내기가 어려운데 우리 세미나를 위해 임석해주신 산림청 차장님 그리고 전라남도 농림국장님 이시간 후에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전라남도 산림시책에 대하여 현황 설명을 해주실 것으로 압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산림양묘는 그동안 정책 담당자가 바뀌질때마다 생산주체가 바뀌어졌습니다. 기업양묘 산림계 양묘, 마을양묘 산림조합양묘 일반양묘 등 생산주체가 자꾸 바뀌어 짐에 따라 우선 양묘기술 발전이 지속가능하지를 못했고 생산주체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 시설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서 산림양묘 사업이 근대화(近代化)를 못한채 몇달후면 21세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산림양묘에 관련된 관민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산림양묘가 새천년을 바라보며 새 청사진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림양묘의 당면 과제는 첫째도 구조조정이요, 둘째도 구조조정이요, 셋째도 구조조정입니다.

산림양묘의 구조조정이란 규모화, 기계화, 전문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산림양묘의 구조조정은 양묘업계 단독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조림이 있는 곳에 양묘가 있기때문에 조림정책과 조림기술이 이를 뒷받침 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날 재배임업을 하는 일본, 독일, 스칸디나비아반도 여러나라들이 인공조림을 높이기위해 온갖 산림정책을 총동원하는 이유는 천연림을 방치했을 때와 인공조림을 해서 관리를 잘 했을때와를 비교하여 후자는 경제가치는 2배 환경가치는 3~4배가 되기 때문에 인공조림이 거의 50%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조림율이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지만 조속히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연간 인공조림량을 늘려가지 않으면 목재 수요의 양양한 장래를 우리가 대처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양묘도 어느정도 규모화되고 따라서 기계화가 가능하며 전문화가 가능합니다.

이와같은 양묘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우량전묘를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공급하여 우리 산림자원조

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짧은 시간이지만 실내에서 또는 묘포현장에서 주요 양묘과제를 가지고 세미나가 진행될 때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모두 큰 수확을 거두고 돌아갈 수 있기를 중심으로 봅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많은 수고를 해주신 전라남도 산림당국과 양묘협회 전라남도지부 회원 여러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본 세미나 첫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주제발표

-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吳光仁 교수
- 우량묘 생산을 위한 양묘사업방안
- 임업연구원 중부임업시험장 尹鍾圭 연구관
- 묘포지 제초의 성력화
- 임업연구원 남부임업시험장 文一成 연구관
- 묘포지 선충피해 예방

3. 기념사진

